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신청 급증

운전자들 “가족생계 걸린 문제 가혹하다” 읍소

광주경찰 작년 이의신청 등 640건...대부분 기각

#10년 동안 트래일러를 몰며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광모(45)씨. 지난해 7월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내 음식점 앞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5%가 나온 광씨는 면허가 취소됐고 이후 9개월여 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해 빚을 내 살고 있다. 그는 결국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1t트럭을 사 행상을 했던 정모(53)씨는 지난해 8월 집 근처에서 술

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가 취소된 정씨는 “300m 음주운전”으로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차량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던 40·50대 가장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법원에 구제를 간청하고 있다.

22일 광주지방법원 401호에서 열린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 재판에만 무려 5명이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의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읍소했다. 이들 대부분이 가족

이나 지인들과 함께 재판정에 들어와 “면허없이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며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 파탄 지경에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불경기 속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장들이 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자동차 면허 취소와 관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건수는 각각 131건과 453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161건과 479건으로 각각 22.9%와 5.7% 늘었다. 이 가운데 구제를 받은 면허 취소자는 지난해 이의신청에서 18명(11.2%), 행정심판에서 86명(18.0%)으로, 10명 중 1~2명 정도만 가

까스로 면허를 회복했다.

특히 법원에서의 구제율은 지난 2010년 12.8%에서 2011년 18.0%로 크게 늘었다.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내고 법정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해 법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면허취소자 250명이 이의신청을 내 14명이 구제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들 사정이야 딱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해야 된다”며 “다만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과 다른 면허취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총장 후보들 선전 다짐

전남대학교 제19대 총장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소견발표회 및 투표가 22일 전남대 국제회의동 옹봉홀에서 열린 가운데 소견발표에 앞서 후보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총장 선거 결선 후보 3인 결정 박창수·윤택림·이병택 교수

전남대학교 제19대 총장 선거의 결선 후보 3명이 결정됐다.

전남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는 22일 입후보한 10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직원 간접선거를 거쳐 박창수(의대 병리학교실), 윤택림(의대 정령의과학교실), 이병택(공대 신소재공학

부)후보 등 3명을 선출했다.

후보자 간 담합 등을 우려해 결선 진출자 3명의 득표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선거는 1700여 교직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교수(180명)와 직원(20명)의 투표로 진행됐다.

3명의 정식 후보 등록은 5월 9~10일이며, 2주간 공식 선거운동을 거쳐 5월23일 본선 투표(직접선거)가 진행된다. 총장추천위는 직접선거에서 선출된 최종 2명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한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총 “고교배정방식 변경은 구시대적 발상”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는 시교육청의 2013학년도(현재 중3이 해당) 고교배정방식 변경추진과 관련,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은 학교별 정원에 비례하여 등급별 인원을 무작위 추출 배정

함으로써 학교마다 학생들의 성적대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대폭 축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본질은 외면하고 결과지만 손질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2분
해질 18시 47분

달돋이 06시 26분
달질 19시 31분

호리고 비

호리고 비가 온 후 오후에 그치겠다.

광주	호리고비	6/8℃
목포	호리고비	7/8℃
여수	호리고비	7/9℃
나주	호리고비	6/8℃
완도	호리고비	7/9℃
구례	호리고비	5/9℃
강진	호리고비	7/9℃
해남	호리고비	7/9℃
장흥	호리고비	7/9℃
순천	호리고비	6/9℃
영광	호리고비	5/7℃
진도	호리고비	7/8℃
전주	호리고비	6/8℃
군산	호리고비	5/7℃
남원	호리고비	4/7℃
옥산도	호리고비	6/7℃

《오전》 바다

종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2.0~4.0m	

주의

보통

낮음

《오후》 바다

종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2.0~4.0m

목포

여수

02:37

14:50

07:49

20:03

09:35

21:49

03:17

15:32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날씨						
최저/최고	3/8	0/10	-1/13	3/16	5/17	5/17

주말 광주·전남 반짝 꽃샘추위

22일 광주·전남 지역에 10mm 안팎의 봄비가 내린 가운데 주말에는 꽃샘추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10~40mm,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는 60mm의 비를 더 뿌린 뒤 23일 오후에 그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24일부터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끼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온이 0~10도 분포로 평년(광주 최저 2도/최고 12~13도) 보다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4일에는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운행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추위는 26일 오후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서울점 02-765-9940

목포점 061-262-9200

순천점 061-752-9940

장흥점 080-222-9975

Le 쿠스쿠스 패밀리 레스토랑

종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2012년 CUSCUS ART HOUSE

쿠스쿠스 패밀리 레스토랑

광주 수원점

광주 신세계점

광주 상무점

062-371-0011

062-360-1981

062-383-3839

쿠스쿠스 광주 수원점

체인점 문의 062-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광주상무점 OPEN!